이 지면은 일정한 분야에서 꾸준한 저술과 성취를 통해 나름의 열정적인 독자군을 확보하고 있는 저자와 그의 작품을 애독하는 독자가 만나 책 바깥의 커뮤니티를 도모하고 저자의 저술세계를 깊게 들여다보는 과정을 소개하는 난입니다.

그림과 책이 맺어준 인연

작가와 독자, 텍스트를 둘러싼 행복한 그림읽기

'평론가가 선정한 올해 최고의 영화'는 대중들에게 외면을 당하기 일쑤다. 대중들은 '평론가' 직함을 갖는 이들의 시선이 재미없고, 지나치게 난해한 작품에만 멈춘다는 것을 안다. 그리고 그것들을 설명하는 방법도 고답적이라는 점에 여러 번 속아(?)왔다. 이는 음악이나 미술도 마찬가지다. '비평'이라는 말이 갖는 무거움은 늘 대중들에게 괴리감을 심어주었고 이 이유로 대중의 예술과 평론가의 예술이 정확히 구분되었다. 그러나 미술평론가 이주헌(학고재, 아트스페이스 서울 관장) 씨의 글은 대중들과 친하다. 그는 10여 권의 책을 통해 대중들이 체하지 않고 그림을 받아들이도록 해줬다. 그래서 많은 독자들이 1990년대 초부터 나온 그의 저작들(《신화, 그림으로 읽기》,《명화는 이렇게 속삭인다》)을 편안한 미술 지침서로 여긴다.

6월 14일 토요일 오후. 학고재 앞 북카페에 모인 독자 다섯 명(김청수 씨, 이연희 씨, 최세현 씨, 최용호 씨, 한성민 씨) 역시 이주헌 씨의 책으로 행복한 미술읽기를 경험한 사람들이다. 이미 책을 통해 '행복한 미술읽기'를 경험한 이들은 이날 미술 이야기꾼을 실제로 만나 텍스트를 둘러싼 그림이야기를 나눴다.

김청수 독자 _《내 마음 속의 그림》에는 로댕의 〈꽃 장식을 한 소녀〉가 선생님 첫사랑을 닮았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평론가는 작품의 가치를 따지는 직업인데 선생님 책 속에는 이처럼 자신의 코드와 맞거나 경험상 좋아하게 된 작품에 대한 언급이 많습니다.

이주헌 _ 저는 작품을 비평의 대상이나 학문적 연구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신 나 자신이 그 그림에 얼마나 동화되었는가를 보죠. 미술사에서 대단한 평가를 받은 작품은 아니지만 마음이 가는 작품이 있거든요. 가령 이콘화(Icon종교화)는 제목·작가도 없고 철저하게 종교적 기능에 의해 만들어졌지만 굉장히 순수합니다. 그 순수함은 어떤 위대한 화가의 걸작 못지않죠. 19세기 영국미술도 마찬가집니다. 19세기 미술은 프랑스 중심으로 기술되어 있지만 사실 당시 영국에서는 빅토리아풍의 그림(일러스트류의 그림)이 유행했습니다. 그런데 예술적 기능과 사조적 기능을 못한다는 이유로 당시에는 평가절하 됐죠. 전 세계미술이 프랑스를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그림들은 너무 대중적이고 달콤하다고 평가받지만 오히려 대중적이기 때문

왼쪽부터 한성민, 이연희, 최용호, 김청수 씨

에 마음에 와 닿는 부분이 있습니다. 유행가가 사람들 눈물샘을 자극하고 그 시대 애환과 정서를 담고 있는 것처럼 평가절하된 그림들도 그 나름의 가치를 갖고 있다고 봅니다.

최세현 독자 _ 학문적인 글쓰기보다는 에세이적인 글쓰기를 주로 하시는 것 같은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이주헌 _ 저는 학문적인 글쓰기에 뛰어나지 않습니다. 공부를 많이 하지도 못했죠. 미술과 친해지고 미술을 사랑하게 되면서 얻은 것들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은 마음에서 글을 쓰게 된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미술을 난해하다고 하는데 미술이 공부의 대상이 아니라 즐김의 대상이라는 걸 전하고 싶었죠. 미술은 단전호흡이나 요가와 같은 대안종교나 다름이 없습니다. 교회나 절은 너무 큰 해탈과 구원을 외치기 때문에 일상의 스트레스를 치유하기 힘들죠. 그러나 단전호흡, 요가, 명상 등은 일상에 활력을 주고 현실적인 해결책을 마련해 줍니다. 예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술은 오래 전부터 '치유'의 성격을 갖는 일종의 대안종교입니다. 음악이나 문학도 마찬가지지만 미술은 가만히 바라만 보고 있어도 명상에 빠지게 되거든요. 이런 것들을 같이 나누고 싶어서 여기 초점을 두면서 쉬운 글쓰기를 하려고 노력합니다.

이연희 독자 _ 《50일간의 유럽미술관 체험》을 보면서 당시 가족들과 고생을 많이 하셨을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책에는 그런 언급이 별로 없거든요. 사모님과 유모차 끌고 여행을 다니시면서 힘든 점은 없으셨는지요?

이주헌 _ 당시 저희 아이들이 네 살, 두 살이었습니다. 사실 가서 보면 왜 데려왔을까 후회를 하는데 다녀오고 나면 그것만큼 좋은 것도 없습니다. 첫 번째 다녀와서는 저희도 다시는 가지 말자고 말했었는데 1999년에 지중해 쪽으로 또 한 번 떠났죠. 그 책은 10년 전에 쓴 건데 햄버거 사달라고 보채고 힘들다고 불평하는 아이들을 데리고 가면서 가족은 역시 함께 고생을 해봐야 단결한다는 걸 배웠습니다. 가족 사이에서도 끈끈한 연대의식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당시는 그렇게 힘들어했는데 요즘 애들을 데리고 언제 또 나갈까 생각하는 중입니다.

최세현 독자 _ 고종석 씨 책과 선생님 책에서 같은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김선주 씨가 어떤 분이기에 제가 좋아하는 필자 두 분 모두가 언급을 하셨을까 의문이 들었죠. 한겨레신문사에 계셨던 분으로 알고 있는데 당시 이야기들 좀 해주세요.

이주헌 _ 저는 제가 예술전문 글을 쓰는 필자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한겨레 문화부 기자를 하고 있었고 미술전문 기자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만 막연히 하고 있었죠. 지금 생각해 보면 당시 한겨레 문화부는 교육의 장이었습니다. 김선주 씨는 당시 문화부장으로 계시던 분인데 부원들에게 자율성을 주면서도 각기 개성이 다른 기자들을 리드하는 카리스마를 갖고 계셨죠. 모두들 마음껏 자기 능력을 배양하게 해줬거든요. 당시 조선희 씨, 고종석 씨 등이 계셨는데 모두 자기 글, 자기 분야에 욕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 역시 이분들을 통해서 글 쓰는 데 많은 자극을 받았습니다. 그분들과 겨루지는 못해도 따라는 가야겠다고 생각하면서 제 분야를 찾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당시 한겨레 문화면을 감히 재미있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최용호 독자 _ 선생님께서는 대중과 미술과의 거리를 좁혀가려고 노력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지금의 현대미술이 대중과의 소통을 잘 이루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이주헌 _ 아직도 소통에 어려움이 많지만 10년 전보다는 많이 좋아졌어요. 일단 전시장을 찾는 사람들도 늘고 10년 전과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다양한 미술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무엇보다 미술인력이 증가해야죠. 저는 전문가들을 위한 부분이 따로 있고, 그것과 대등하게 대중들을 위한 부분들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대중화라고 해서 학자들이나 전문가들의 연구성과나 전문적인 비평자체를 쉬운 언어

독자 최세현 씨(왼쪽)와 이주헌 씨

로 표현한다고 생각해선 안됩니다. 발상 자체부터 대중들의 입장에서 사고하고 대중들의 입장에서 소화해야죠. 지금까지는 감상영역이 학술영역의 보조역할을 하거나 학술의 영역이 쉽게 풀어져서 감상으로 넘어갔는데 감상영역도 독립된 영역입니다. 학술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것이 절대 아니죠. 이것을 전하는 전문인력이 많이 나와야 진정한 대중화가 이루어집니다.

김청수 독자 _ 저는 일러스트를 공부하는데 선생님 책에서 일러스트레이터 벤샨의 〈해방〉을 보며 위안을 삼으신다는 말을 보고 기분이 좋더군요. 일러스트레이션이 책과 연관된 작업이기 때문에 순수회화와는 다른 면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주헌 _ 벤샨의 그림은 인간에 대한 깊은 사고가 없으면 나올 수 없는 그림입니다. 아무리 베끼려고 해도 벤샨의 철학을 담은 일러스트레이터가 나오긴 힘들거예요. 예전에는 종교화가 일러스트나 다름이 없었거든요. 글을 모르는 사람들이 성모마리아, 아기예수 이야기를 그림을 보고 성경의 창세기 내용을 알게 되죠. 제가 볼 때는 일러스트레이션의 역사와 작가들을 관심 있게 서술하고 재평가하는 작업이 있어야 합니다. 대학 다닐 때 저도 아르바이트로 일러스트레이션을 해봤는데 그냥 그리는 건 쉽지만 자기 색깔을 찾고 감성을 갖고 있기는 힘들죠. 가끔 화가가 되고 싶은데 뭘 준비해야 되느냐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인물을 보면서 크로키를 하되 스케치북은 보지 말고 대상만 보고 그리라는 제안을 합니다. 그래야 인물의 표정과 거기 담긴 내면을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림은 기술이 아니라 인간을 이해하는 과정입니다. 디테일한 모양, 형태를 따라가다 보면 진정으로 찾아야 하는 걸 놓치는 경우가 많은데 내밀한 본질을 보면서 인간, 삶을 바라보는 게 중요합니다.

한성민 독자 _ 선생님 글을 보며 미문이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문체미학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그리고 외국 예술서 출판은 우리 출판과 어떤 면에서 다르고, 우리가 어떤 면에서 본받을 부분이 있을까요?

이주헌 _ 저는 제가 문인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특별히 노력하는 부분은 없지만 늘 쉬운 글쓰기를 하려고 노력하죠. 아버지가 언론출판계통에 계셨기 때문에 저도 모르게 영향을 받은 것도 같고, 기자생활에서 쉬운 글쓰기를 익힌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만나는 그림 자체가 제 서술에 도움을 준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미술출판은 크게 소수 전문가들과 일반인들을 위한 책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서양에는 다양한 예술서가 존재합니다. 정말 층층이 분화되어 있죠. 현재 이런 분화를 기대하기는 힘들지만 지금부터라도 이해의 정도를 넘나드는 책이 많이 나와야 합니다.

최용호 독자 _ 선생님은 서양미술사에서 모더니즘 전까지를 다루시는 것 같은데 현대미술의 구체적인 형상에 대한 언급을 하실 계획이 없는지요?

이주헌 _ 하고 싶기는 한데 도판 저작권 때문에 망설이고 있습니다. 저작료를 내야 하는데 그러려면 배보다 배꼽이 커지거든요. 사후 50년이 넘은 작가는 저작권이라는 게 국제 협약상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사진 도판에 대해서는 일부 저작권이 존재하죠. 그걸 다 챙기려면 너무 힘듭니다. 현대미술에 대해 안 쓰고 싶은 게 아니라 쓸 말도 많고 할 말도 많지만 엄두가 나지 않죠. 현재로서는 외국 책을 번역하는 일 외에는 마땅한 대안이 없습니다. 사실 예술서를 쓰는 입장에서 저작권을 한쪽 기준으로만 바라보는 데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특정 작가가 제 글 덕분에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전시회를 갖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빚을 져가면서 도판 저작권을 사야 할 때 그 작가들이 정말 중요한지 의문을 갖게 되죠.

이주헌 씨는 도판 저작권을 비롯, 예술서를 출간하는 과정에 관심을 갖는 독자들의 궁금증을 자상하게 풀어주었다. 그리고 현재 《화가와 모델》이라는 책을 준비하고 있다며 미술서를 통해 그림과 친해지는 독자층이 더 늘어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진행 김청연 기자 · 사진 박신우 기자